광주·전남 문화재단 소장품 시민곁으로 '한 걸음 더'


광주문화재단 로비에 재배치된 이이남 작가의 작품 '빛의 비너스'

통합문화재단, 문화자산 깨우고 빛내라 〈상〉문화자산 관리 실태

내년 1월1일 광주·전남 문화재단 본격 통합을 앞두고 지역 문화자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양 재단이 보유한 미술품은 총 140점으로, 그동안 기증과 구입 등 서로 다른 경로로 확보한 작품을 각자의 방식으로 관리하고 전시·대여해 왔다. 최근 광주문화재단이 기존 소장품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재배치하는 등 활용에 나서면서 공공 문화자산의 가치와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보는 두 재단의 미술품 관리·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타 지역 사례를 통해 통합 이후 문화자산의 보존과 시민 향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광주 23점·전남 117점 보유
취득·관리 방식 달라…일원화 시급
광주 기증 작품 전면 재배치
전남 공공기관 임대 활용 '변화 시도'


이매리作'침묵속으로'

광주·전남 문화재단이 보유한 미술품 140점의 관리·활용체계 정비가 통합 이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두 재단은 그동안 서로 다른 경로로 확보한 작품을 전시하거나 외부 기관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통합을 앞두고 소장품의 취득 경위와 보존 상태, 활용 이력 등을 일원화하고 중장기적인 운영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전남문화재단에 따르면 광주문화재단은 미술품 총 23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9점을 전시하고 4점을 별도 공간에 보관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작품을 별도로 구매하기보다는 사업 과정에서 기증받은 작품 등을 중심으로 소장품을 확보해 왔다. 작품 특성에 따라 디지털 파일 등을 보관하고, 상태 점검을 거쳐 전시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전남문화재단은 과거 예술은행 사업을 통해 구입한 작품 3천817점 가운데 판매 등을 거쳐 현재 80명 작가의 작품 117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39점은 국립목포병원과 도서관, 교육청 등 외부 기관에 임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재단 사무실 내 별도 공간에 보관 중이다.

과거 진도의 미술관에서 작품을 보관했으나 잔여 수량이 줄면서 재단 사무실로 옮겼다. 족자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작품은 외부 임대가 어려워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남도 사이버 갤러리'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장품을 공개하는 사업도 운영 중이다.

이처럼 광주문화재단은 기증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 공간에서 활용하고, 전남문화재단은 예술은행을 통해 구입한 작품을 외부 기관에 임대하는 등 소장품의 취득 경로와 활용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광주문화재단은 그동안 시민들의 눈길이 닿지 않던 작품들을 전면에 배치하며 소장품 활용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매리 작가의 대형 설치작 '침묵 속으로'는 지난 2015년 재단에 기증됐지만 10여년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데크와 계단 옆 등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놓여 있다가 지난달 빛고을시민문화관 정문 앞으로 옮겨졌다. 이이남 작가의 '빛의 비너스' 등도 로비 공간 재구성을 통해 전면 배치됐다. 별도의 작품 구입이나 시설 확충 없이 기존 소장품의 배치를 바꾸는 것만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 사례다.

이매리 작가는 "문화재단에서 연락이 와 오래전 기증한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소장품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사과를 받았을 뿐 아니라 작품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배치하게 돼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단의 소장품 재배치는 문화도시 도약으로서 의미 있는 일"이라며 "지역 미술관 등 수장품은 작가에게 작품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려주지 않는 실정이다. 문화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배치는 소장품을 단순히 보관하는 데서 벗어나 시민과 공유하는 공공 문화자산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작품의 보존뿐 아니라 설치 장소와 공개 방식, 작가와의 소통 등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다만 양 재단 모두 작품 보존을 위한 별도의 전용 수장고와 항온·항습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 문화재단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수장고 의무 설치 대상 기관은 아니지만 작품의 재질과 특성에 맞는 보존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두 재단 모두 대표이사가 공석인 가운데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통합 이후 문화자산 관리정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서로 다른 소장품 관리 방식을 조정하고 작품별 보존 상태와 활용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허진 전남대 예술대학 전 학장은 "일단 작품의 취득 경위와 보존 상태, 설치 장소, 활용 이력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통합 작품 목록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앞둔 만큼 소장품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좋은 시점"이라며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통해 잠들어 있는 문화자산의 가치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복 기자



평촌 주민들 삶, 예술로 피어나다

무등산 자락 평촌마을 주민들의 삶과 이야기가 춤과 노래, 연극으로 피어난다.

무등산평촌명품마을(대표 정태영)은 오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마을 쉼터 인근에서 평촌아트커뮤니티 '당산나무 아래에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박태규 생태관광국장이 이끄는 생태평화예술학교와 광주문화재단의 '2026 광주예술로' 사업을 연계한 주민 참여형 예술마당으로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작업하며 마을의 일상과 삶의 이야기를 예술로 풀어낸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다.

공은주 무등산 평촌 자연환경해설사가 사업을 총괄하고, 치유무용가 강혜림이 총연출을 맡았다.

기역책방 송기역 작가는 인생편지글, 개미필름 정광식 감독은 영화 제작과 기록, 연극배우 김정훈은 탈굿, 성악가 안정현은 인생노래, 강혜림은 춤테라피와 커뮤니티댄스를 통해 주민들과 호흡해 왔다.

행사는 오전 11시30분 생태밥상을 시작으로 오후 1시에는 마을 할머니들이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깃발을 들고 앞장서는 길놀이가 펼쳐진다. 공연은 무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복 기자

어린이들 상상력으로 재해석한 '도자기'

내달 6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우수작품전



문화유산인 도자기를 풍부한 상상력으로 어린이들이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지난 8월 열린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의 우수작품전을 오는 12월6일까지 도자문화관 2층에서 개최한다.

올해 37회째 이어온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는 어린이들이 문화유산을 직접 관찰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올해는 '도자기의 쓰임새'를 주제로 전남광주지역 초등학생 및 동일 연령 청소년 137명이 참가해 도자기의 다양한 쓰임과 의미를 그림으로 풀어냈다.

심사기준은 창의력, 묘사력, 표현력이며 으뜸상, 버금상 등 총 50명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오복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사 944-0993

지방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